

향(香)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미 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교수 이 선 재

目 次

I. 서 론	V. 향집 문양에 나타난 상징성
II. 향의 일반적 고찰	IV. 결론 및 제언
III. 향집의 기원과 유형	참고문헌
IV. 향집의 기능 및 특성	ABSTRACT

I. 서 론

인체와 관련된 의복의 심미적 아름다움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후각적 즉 지각에 관련된 심미적(審美的) 반응에 관여하며,¹⁾ 지각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의복의 어떤 면 이라도 미적 경험의 일부라고 볼때,²⁾ 의복의 후각적 부분과 관련된 냄새, 즉 향(香)은 의생활에서의 쾌(快)의 감정을 불러 일으킬 뿐만아니라 의복의 악세서리로써 장식적 요소가 될수있다고 본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몸에 향(香)을 지니기를 즐겨한다. 향수(香水)가 없던 옛날 몸에 향을 지니는 방법으로 주머니에 넣어서 차거나 혹은 약용(藥用)으로 혼합시켜 예쁜 형으로 만들어 술을 꿰어 장신구로 차기도 하였으며, 또는 여러가지 형태로 수 놓아서 속에 향을 넣어 장신구로 패용

하였다.³⁾

이러한 향을 넣은 장신구, 향집은 실용(實用)과 장식(裝飾)을 겸한것으로, 남녀가 같이 애용한 것이었으며 당시 여인들의 복식과는 분리시켜서 생각할수 없으리만치 품위를 돋보이게 하는 구실을 하여 왔다. 따라서 향집은 의복에 패용(佩用)함으로써 복식(服飾)의 장식적(裝飾的) 효과를 더해줄 뿐만아니라 향긋하면서도 은은한 방향을 위시하여 약용(藥用)및 주술적(呪術的)인 기능 등 다양한 성격을 띤 실용성(實用性)을 겸한 장신구로써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장식(裝飾)과 실용(實用)을 겸한 향집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향집의 조형적 측면을 논의한 김영자⁴⁾의 연구가 있을 뿐이며, 대부분 장신구의 부수적인 분야로써 혹은 노리개의 종속적인 개념에서만 다루어져 있는 실정이다. 또

1) Mary Ellen Roach, Joanne B. Eicher, 이유허경 · 이은숙(역), 『가시적 자아』 (서울 : 경춘사, 1990), p.69

2) Marilyn J. Horn, Lois M. Gurel, 이화연 외 2명(역), 『의복 : 제2의 피부』 (서울 : 까치, 1992), p.13

3) 석주선, 『장신구』 (서울 :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1), p.137

4) 김영자, "향집에 관한 조형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

한 향집 속에 들어가는 향(香)에 대한 연구역시 화장문화(化粧文化),⁵⁾ 화장풍속(化粧風俗)⁶⁾의 부분적인 측면에서 약간 다루어져 있을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집에 넣어 사용했던 향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더불어 다양한 성격을 띤 향집의 기능성을 중심으로 실용적 측면과 장식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생활을 통해 어떻게 활용될수 있는지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文獻)에 나타난 향(香)과 향집의 사적(史的)인 고증과 함께 현존하는 향집 유물 실체(實體)의 기능성(機能性), 장식성(裝飾性)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각 대학 박물관, 태평양박물관 등에서 유물도판, 사진 등의 간접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실물(實物)의 자료를 직접 관찰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시대적 범위로는 상고시대(上古時代)로 부터 조선시대(朝鮮時代)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대상으로서의 향집의 범위⁷⁾는 의복에 패용함으로써 실용성과 함께 장식적 효과를 냈던 향낭(香囊), 향갑(香匣), 향괴(香塊)로 설정했다. 그러나 문헌상에 나타난 향집의 기원은 신라시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나, 수집된 향집의 유물자료는 대부분 조선시대의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향집의 장식적 측면에 관한 자료들은 조선조 후기의 유품들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II. 향의 일반적 고찰

1. 향의 유래(由來)

향(香)은 원시적 제사나 종교적 의식에 헌상용(獻上用)으로 향목(香木)을 태우기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향목을 태움으로써 향이 신과 인간의 매개자(媒介者), 또는 영험을 불러온다고 믿었으며, 초기에는 종교와 큰 연관이 있었다.⁸⁾ 이러한 향목을 태우는 의식은 동서양이 다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곧 향화(香火)이며, 향의 어원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다.

향(香)은 영어로 perfume인데 perfume은 perfumus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through smoke](연기를 통한)라는 것으로, 이는 연기를 내다(熏香)라는 의미라는 것이다.⁹⁾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향은 ‘제전에 피우는 향내가 나는 물건, 또는 향나무를 꺾은 부스러기나 또는 가루를 반죽하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만든것’이라고 되어있다. 또한 “향을 만드는 감”, 즉 향을 제조해주는 원료로 쓰이는 것을 『향료(香料)』라 하며, 『향유(香油)』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화장용 물기름”, 『향수(香水)』는 “향료를 알콜등에 용해시켜서 만든 화장품(化粧品)의 한가지”라고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의 향료는 불을 피워서 방향(芳香)을 내는 것이 주(土)였을 것이며, 그때 방향을 내는 나무나, 풀의 뿌리, 껍질, 나무기름 등을 불 속에 넣어 일어나는 향기에 손이나 몸, 발등을 쬐여 다복(多福)을 기원했다고 추측된다. 즉 그 연기로 인한 향기로운 냄새로 몸에 붙어 있는 잡귀(雜鬼)를 쫓고 깨끗한 몸으로 종교의식을 치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또한 화학적으로도 살균효과가 있으므로 의료(醫療)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집트 전성기에는 향료와 향유의 소비량이 막대했으며, 사람들은 몸에

5) 송민정, “우리나라 전통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6) 김은주, “한국전통화장풍속에 관한 연구”, 『복식』 제17호, 1991

7) 향을 넣은 집, 즉 향집으로는 향낭, 향갑, 향괴(발향)이외에도 부채에 매달았던 향선추(香扇錘), 향유를 담았던 향유호(香油壺) 등이 있다.

8) 登園正生, 『香料の事典』(東京: 朝倉書庫, 1984), p.45

9) 전완길, 『月刊藥局』, 1983年 3月, p.160

향유를 발라 의복에서 향기가 나도록 했다. 또한 부유층에서는 방안을 방향으로 가득차게 했으며 여성은 향료가 들어간 물에서 목욕(沐浴)을 했다.¹⁰⁾ 그 후 향은 그리이스, 로마시대로 내리 전승되어 갔다.¹¹⁾ 로마인들이 유분에 향료를 용해한 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향수의 시초라 할수있다. 이러한 향료는 상류층의 독점물이었으며, 신라의 여인들이 향을 주머니에 넣어차고 다닌것과 흡사하게 유럽에서는 향내나는 장갑이 발명되어 한때 대단한 인기를 집중시키기도 했다.¹²⁾ 또한 향의 사용이 구분되어 있어 귀족, 평민, 군인, 창녀, 노예 등을 가려낼 수가 있었다.¹³⁾

1307년 중세시대의 헝가리 왕비 엘리자베스(Elizabeth)에 의해 헝가리 워터(헝가리 향수)라 불리는 최초의 알코올(alcohol) 향수를 발명하였다. 14세기로 부터 17세기 까지에는 세익스피어가 이름 지은 포만더(pomander, 향갑)를 지니고 다니는게 유행이었다고 한다. 이 단어는 사향(麝香)과 용연향(龍涎香)의 혼합물이란 뜻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향갑(香匣)을 들고 다니던 관습으로부터 이제 고리를 달아 목에 달거나, 속옷에 달린 지갑에 넣도록 바뀐것이다.¹⁴⁾ 1709년 오데코롱(eau de colong)이 생산되고 수피(樹皮)에서 향물질을 뽑는 기술이 발명되었고, 19세기에 들어와 현재와 같은 인공향수까지 전개 되었다.

한편, 향물질의 응용은 결코 서구 문명에 한정되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향의 전파에 있어서는 동양의 기여가 더 크다 할 정도이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도 일찍부터 향 물질을 사원의 제단에서 분향(焚香)으로 태우고 있었다. 유교, 불교, 도교 가릴것없이 향은 신성한 물질로 취급되었다.

그리고 옷에는 향 분말을 뿌려 향긋한 냄새를 풍겼으며, 방에는 선향(線香, Joss stick)을 피워 냄새를 가득 채웠으며, 향연에는 입힌 종이를 썼다. 그리고 차에는 꽃잎을 띄워 향기를 더했다.¹⁵⁾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고구려(372년), 백제(382년)에 불교문화와 함께 향료가 들어왔으며 목욕과 향은 불교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었다. 불교가 점차로 전파되고, 국교로 정해짐에 따라 향의 사용은 일반화 되었다.

처음에는 향료를 수입해서 사용하였으나, 후에는 향기 좋은 꽃잎이나 줄기를 말려 분말로 만들어 신라의 귀부인들은 향료 주머니를 즐겨 하고 다녔다. 그 당시 서민들은 난초(蘭草)의 꽃과 줄기를 잘라 차고 다니거나 매괴화의 꽃잎을 말려 가루로 만들어 향낭(香囊) 속에 넣고 다니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노리개 중에는 향갑노리개, 수향낭(繡香囊)이 있으며, 사향, 부용향(芙蓉香)등의 고체향을 장신구로 달고 다니며 향내를 풍기기도 했고, 향내질은 꽃과 잎, 줄기, 뿌리를 건조시켜 분말로 한 후 유지에 배합하여 향유용기에 담아 지금의 향수대용으로 손끝에 묻혀 사용하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코올성분 합성향은 1872년 유럽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고, 일제치하때 밀려드는 신식 화장품과 함께 향수가 행상인에 의해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팔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향료는 처음에 종교의식용품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그후 발전하여 화장품으로 변한것이라 할수있다. 삼국시대의 여인들도 최초에는 공향을 위해 향료를 지니고 다녔으나 그 후 향료가 인체의 체취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것에 착안하여 점차 화장품으로 사용하기에 이른것이다.

10) 登圀正生, 前掲書, p.46

11) 김명자, 前掲書, p.275

12) 전완길, 前掲書, p.160

13) 上掲書, p.275

14) 김명자, 前掲書, p.278

15) 上掲書, p.276

이와같이 종교적 의식을 위하여 처음 사용되어 오늘날 아름다움의 표현수단으로 발전한 향수는 이제 자신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중요한 모티브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있다.

2. 향의 시대적 배경

1) 상고시대~삼국시대

단군신화(檀君神話)¹⁶⁾에 의하면 향료가 우리조상들의 생활과 밀접했을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즉 기원전 2333년에 한국인들이 첫 생활근거지로 삼은 도시가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 아래라는 것이다. 이 신화를 기록한 『三國有史』의 원주는 태백산을 지금의 묘향산(妙香山, 야릇한 향내 나는 산)이라고 하였으며, 또 첫 제왕이 단군이라고 말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신수(新樹)는 단순한 거목이 아니라 단수(壇樹)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한국인의 첫 거주지가 탁달나무 근처였으므로 제천 행사 혹은 기원할때 향나무 가지를 사르거나 향나무 잎의 즙을 몸에 바른것 하였을 것이다.

삼국시대 불교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공향(供香)의식이다. 이는 불전(佛前)에 향을 피우면 부처님이 내려와서 기원하는 이의 소망을 들어준다는 믿음으로 인해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이후 삼국시대 사람들은 향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로인해 향료의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¹⁷⁾

한편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인들이 신분의 귀천에 구애 없이 주머니에 향료를 담아 찻다고 한다. 이러한 애향관습(愛香慣習)은 불교의 전래(4~6세기)이후 향료의 교역이 확대되고, 당(唐)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광범위해진 듯하다.

또한 통일신라시대(9~10C)의 것으로 경주부근

에서 출토된 토기 향유병(높이 : 5cm, 입지름 : 2.8cm, 지름 : 6cm)에서도 신라인들이 향유를 사용했던 사실을 알수있다. 향유병은 향유의 제조가 용이하지 않고 고가였기 때문에 유병중에서 가장 작고 앙증스럽지 않았나¹⁸⁾ 한다.

2) 고려시대(高麗時代)

고려는 신라의 문화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발전시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향수, 향료 분야에서도 전대의 발달된 문화가 그대로 이어졌다.

한편 국초(國初)부터 중국의 기녀(妓女)제도를 본받아 교방(交坊)을 두는 등 기녀를 제도화시킴으로써 외형상 사치해졌고, 내면으로는 탐미주의(耽美主義)의 경향이 농후해졌다. 이는 재가인(在家人)을 위한 출가법 팔계재(出家法 八戒齋)중에 '도식향만(塗飾香曼)', '부저화영락(不著華瓔珞)', '불향도신(不香塗身)'등의 항목에서 잘 나타난다. 즉 일부계층에 한정되긴 하지만 신체와 머리카락, 옷에 향을 뿌리거나 발랐으며, 옷에 향을 스미게 하였고 갖가지 보석장식을 패용했다.¹⁹⁾

또한 『고려도경』에 "고려(高麗) 귀가(貴家) 부녀자(婦女子)들은 감람록건(橄欖勒巾)에 채조금탁(采條金鐺)을 달고 금향낭(金香囊)을 찻는데 많은 것을 귀히 여겼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려대에 오면 신라시대 보다 더 많이 금향낭을 찻던 것 같다.²⁰⁾ 이 귀절은 향유 바르기보다 향을 뿌리거나 옷에 향내가 스미도록 하고 향낭 패용을 더 좋아한 관습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향의 교역은 중국 진, 송, 원나라와 활발히 진행되었다. 고려 초기인 혜종 2년(945)에, 그리고 문종 33년(1709)에 향유 50근, 220근을 각기 진과 송에 보냈으며, 송으로부터는 문종 33년(1079)에 경주 침향(沈香), 광주 목향(木香), 광주 정향(丁

16) 檀君神話, 「三國有史」, 卷一

17) 전완길, 『한국 화장 문화사』 (서울 : 열화당, 1987), p.49,

18) 上揭書, p.31

19) 송민정, 前揭書, p.18

20) 백영자, 『한국의 복식』 (서울 : 경춘사, 1993), p.319

쥬), 서유 안식향(西戎 安息香), 광주 곽향, 용뇌향, 사향 등을 보내온 일이 있다. 따라서, 향료 사용 도구(道具)들이 많이 남아 있다. 향낭은 출토된 예가 거의 없으나 백동(白銅) 혹은 청동제의 정교한 향로와 청자향로가 다수 전해지고 있으며, 역시 청자로 만들어진 향합(香盒, 분말과 고형을 담음)과 액상의 향을 담은 작은 병【사진 1】이 적지 않다.



【사진 1】 청자향유병(출처 : 태평양 박물관)

3) 조선시대(朝鮮時代)

조선왕조시대에 이르러서는 향 사용 사례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선비들은 독서할때와 시를 지을때 으레 옷을 단정히 차려 입고 향을 향로에 지피곤 하였다. 또 부부(夫婦) 침실에 사향을 사르고 난향의 촛불을 켜서 분위기를 돋우었고, 여자들뿐 아니라 남자들도 향낭을 패용하였다. 대부분의 관리들도 향낭을 패용하였으며, 선비들은 은은한 향내를 발산시켜야 선비다운 선비로서 평가되었다. 선비들의 애향관습(愛香慣習)이 철저하여 향료를 옷에 뿌렸는가 하면, 향수(香水)에 머리감고 목욕하는 훈목관습을 생활화하였다.

조선조 이전의 방향풍속(芳香風俗)은 주로 백단향의 즐기나 안식향의 수피(樹皮), 그 밖에 향내나는 꽃잎을 건조시켜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기름에 재워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는 식물을 이용한 향료 이외에도 사향(麝香)이라 하여 사향노루 수컷의 복부에 있는 선(腺)분비물을 말려 만든 향료가 발달하였다. 궁중에서도 사향노루를 직접 사육한 사실도 있다. 궁노루의 향낭을 말려서 만든 사향은 향료로써 뿐만아니라 약재(藥材)로도 쓰였으며, 옷에 향기를 스며들게 하는 훈의향(薰衣香)이 발전하면서 부터는 사향과 향내나는 식물을 혼합한 향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난초와 사향을 혼합해 만든 난초사향과, 용뇌수(龍腦樹)와 사향을 합해서 만든 합향(合香)이다.²¹⁾

그런가 하면 수입에만 의존하던 향료를 국내생산에도 힘써 세종 때에는 변계량(下季良)으로 하여금 각도 각읍의 약초, 토산품을 조사하여 의무적으로 생산, 또는 재배케 하였다. 이를 테면 경기도에서는 백합, 청목향(靑木香), 회향(回香)등을, 평안도에서는 백합, 사향, 안식향 등을 생산 종양케 했다.²²⁾

그리고 성종 때에는 향 식물의 재배관리를 감독하는 「전향별감(傳香別監)」이라는 관리를 두었던 사실이 대전속록(大典續錄, 卷二, 禮典雜令)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궁중에서 사용하는 향을 관리하는 향실(香室)이라는 관청을 두어 교서관(校書館)에 소속되어 대궐에서 제사지내는 향과 축(祝)을 맡아보던 곳으로 고종 31년(1894년)에 폐지(廢止) 되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향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에서는 다방면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을뿐 아니라 애용의 대상으로까지 확대되어 장식과 더불어 특히 부녀자들의 고귀한 품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까지 발전되어 온것을 알수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 향이 정서와 정신요법에 긴요하다고 하는바²³⁾ 이와같은 애향관습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21) 조효순, 『한국복식사풍속연구』 (서울 : 일지사, 1988), p.394

22) 전관길, 『멋 5000년 : 한국의 여속』 (서울 : 교문사, 1960), p.196

23) 일본 동방대학(東方大學)도리이(鳥井)교수가 1986년 4월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자스민향은 뇌파의 진폭을 양진시키며, 라벤다향은 진정시키는 등 향료가 인간의 정서와 밀접하다고 한다.

3. 향의 종류 및 용도

1) 향의 종류

고래(古來)로 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여 온 향에 대하여 자연향, 혼합향, 약용향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주로 자연에서 얻어진 향을 그대로 정제나 액으로 사용한 자연향(自然香)과 여러가지 향료를 혼합하여 쓰여진 혼합향(混合香), 그리고 약용으로 쓰여진 약용향(藥用香)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기본향료는 중복되어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자연향(自然香)

① 식물성(植物性)

식물성 향료는 종류가 이루 헤아릴수 없을 만큼 많은데, 예를 들면 꽃, 과일, 과피, 수목, 목재 등을 원료로 하고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식물성 향이다.

- 丁香(정향) : 정향나무 꽃봉오리에서 채취한 향의 일종으로 심복통, 구토에 사용됨
- 安息香(안식향) : 안식향과에 딸린 교목에서 채취한 향의 일종으로 훈향료(薰香料), 방부제(防腐劑), 소독용(消毒用)으로 사용됨
- 紫丹香(자단향) : 자단나무를 깎아서 만든 향으로 권초제(捲草祭, 아기탄생)²⁴⁾에 사용함
- 芙蓉香(부용향) : 아욱과의 다년생에서 채취한 것으로 혼인때 피우는 향의 일종으로, 주위를 정화하고 방충제 역할도 하며 잡귀를 쫓아내는 기능도함
- 龍腦香(용뇌향) : 용뇌향과의 상록교목인 용뇌수로부터 채취한 무색투명의 판상결정방충제, 훈향
- 광향 : 꿀풀과에 속하는 방아풀(배초향)과 광향의 옹근풀을 말린 것
- 木香(목향) : 영거시과(菊科)의 다년생 풀에

서 채취한 향의 일종

- 檀香(단향, =백단향) : 단향목에서 채취한 향의 일종
- 蘇合香(소합향) : 인도산 조록나무과에서 채취한 향의 일종

② 동물성(動物性)

- 사향 : 사향노루, 사향고양이 등의 수컷의 배꼽과 볼두덩을 싸고 있는 향낭을 쪼개서 말린 향료로 검은 갈색의 가루이다. 방향(芳香)이 심하게 나므로 여러가지 향료로 쓰이고, 성질이 온(溫)하여 위장을 맑게하고 정신을 깨끗하게 하며, 또한 살충하는 힘도 있는 한편 강심제(強心劑), 각성제(覺醒劑) 등 여러가지 약재로도 쓰인다.

사향노루의 수컷이나 사향고양이의 암, 수컷 등의 생식선(生殖腺) 부근에 있는 분비선(分泌腺)의 달걀꼴 덩이로 무게는 20~30g 이다. 번식기에만 발달하는 것으로써, 사향을 분비하여 암컷을 유인(誘引)하는 구실을 한다.²⁵⁾

- 용연향 : 말향고래로 부터 채취하는 송진 비슷한 향료로 사향과 같은 좋아하는 방향이 있음
- 해리향 : 캐나다에서 서식하는 비이버란 짐승의 암늪과 숫늪의 선낭에서 분비되는 물질에서 채취하는것으로 희귀한 것이다.
- 영묘향 : 아프리카에 분포되어 있는 사향고양이의 암, 수컷의 선낭에서 얻어지는 원료²⁶⁾

③ 광물성(礦物性)

- 경면주사(鏡面朱砂) : 류화수은(HgS)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광석으로, 결정된 주사(朱砂)의 한가지이며 광색은 짙은 홍색이다. 순조 19년에 있었던 왕세자(효명세자. 익종) 가례때 중국에서 들여온 보석(寶石)의 건기(件記) 중에 “경면주사(극디) 5”를 보면 중국에서 수입해올 정도로 그 사용량이 많았다고 한

24) 김용숙, 『이조여류문학 및 궁중풍속의 연구』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70), p.477

25) 김동일 외 4인, 『동의학 사전』 (서울 : 과학원 출판사, 1990), p.789

26) 예술문화사 본사편집부 엮, 『현대 여성 미용백과 ; 얼굴 미용』 (서울 : 예술문화사, 1974), pp.183~184

다.

- 서강(=藥石) : 세종대학 유물관 소장품이며 17세기 것으로 가로, 세로 7.5cm의 반타원형 형태이다. 주황, 노랑색이 곁들인 돌로 잘 갈아지며 물에 풀면 붉은색으로 용해되는데 특히 뱀에 물렸을 때 서강을 상처 부위에 대고 있으면 독이 빠진다고 한다.

(2) 혼합향(混合香)

우리나라의 향료는 일부 상품화 하여 시전에서 판매되었지만 대부분 여의 생활필수품과 마찬가지로 자가생산되었다. 궁중에서는 향장(香匠)이라는 전문 기술자에 의해서 생산되었고, 민간에서는 주부들에 의하여 제조되었다.

혼합향이란 여러가지 향을 섞은것으로, 『규합총서』에 다음과 같이 향료 제조법이 소개 되어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향료 제조가 주부의 업무였음을 알수있다.

“무릇 향을 화합함에 그 질거나 되기를 알맞게 하기가 무척 힘들다”고 전제하였는데, “향을 고루 섞어 그릇에 담아 종이로 굳게 봉하여 집안 땅을 세치 혹은 너댓치 파고 묻는다. 한달 지난 뒤에 꺼내면 그 향내가 기이하다”고 말하였다.

◎ 매화향(梅花香) 만드는 법

감송(甘松)과 영릉향(零陵香) 각 한냥, 단향(檀香)과 회향(茴香) 각 반냥에 정향(丁香) 1백대, 용뇌향 약간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 꿀에 개어 섞는다. 기이하게 생긴 판에 박아 알맞게 말린후 주사(朱砂)를 곁에 입히고 자개와 금채를 한다.

◎ 향병자(香餅子) 만드는 법

좋은 숯 한근과 접시꽃 잎이나 꽃을 한근 반과 함께 찢어 곱게 만든 다음 묽은 풀을 조금 섞어 합하고 떡처럼 만들어 탄자(彈子) 크기로 환을 지어 벌에 말린다. 이를 병속에 넣어 두고 향을 피울때마다 향료에 묻으면 오래도록 사위지 않는다. 접시꽃이 없으면 잇꽃(홍화)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 옷장속에 넣는 향 만드는 법

영릉향 한근, 감송, 단향 각 열냥, 정향피(丁香皮), 신이(辛夷, 白木蓮) 반냥, 회향 한푼을 찢어 곱게 가루내고 용뇌향과 사향을 조금 넣어 사용한다.

◎ 구자향 만드는 법

애납(艾納, 백년 묵은 소나무 동굴에 피는 푸른 이끼) 한근, 정향 반냥, 땃대 추 찢 기름 한종지, 단향 반냥, 향부자(香附子), 백지(白芷) 각 반냥, 모향(茅香) 반냥, 초두(草豆)구거피 각 한매, 용뇌향 약간을 지어 대추를 고아 졸인 꿀에 알맞게 섞어 절구에 넣고 찧는다. 절구에 붙지 않을 정도로 찧어지면 곧 그쳐 오동씨 크기로 환을 만들어 말린다. 이 환을 늘 한알씩 피우면 그 냄새가 장차 스러지려고 할때 바로 위로 올라 모이어 오래도록 흩어지지 않는다.

이밖에도 침향, 소합향, 단향을 섞은 향으로 청원향(淸遠香, =聚仙香)이 있으며, 백출, 목향, 침향, 사향, 정향, 안식향, 백단향, 주사, 우각, 감초 등의 가루로 만든 환약으로 모든 기질에 약으로 쓰인 사향소합원이 있다.

(3) 약용향(藥用香)

- 경면주사(鏡面朱砂) : 토사곽란시에 응급 약으로 쓰였으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경풍을 멈추게하며 열을 내리고 독을 푼다.
- 한충향(漢沖香) : 향이 길으며 방충(防蟲)에 사용되었다.
- 부용향(芙蓉香) : 형태에 따라 장식용과 실용이 있는데, 방충(防蟲)을 위해 종이에 싸서 옷사이에 넣어 둔다.
- 옥추단(玉樞丹) : 옛날 궁중의 의약을 관장하던 내의원에서 만든것으로 임금님이 단오(端午)날에 신하들에게 나누어주던 구급약의 일종이다. 모양은 여러가지이며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오색실로 꿰어 패용하고 다니다가 꺾거나 서체(滯滯)가 생기면 갈아서 물에 타서 복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옥추단을 패용하는

데는 악귀와 재앙(災厄)을 물리치며 무병장수를 소원하는 벽사의 의미도 있었다고 한다.

- 사향(麝香) : 막힌것을 뚫어서 정신을 깨어나게 하며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경락(經絡)이 통하게 하고 맺힌것을 풀어지게 하여 통증을 멈추게 하는데 증풍으로 인사불성이 된사람을 깨어나게 한다.

이외에도 자단향, 안식향, 정향등이 약용향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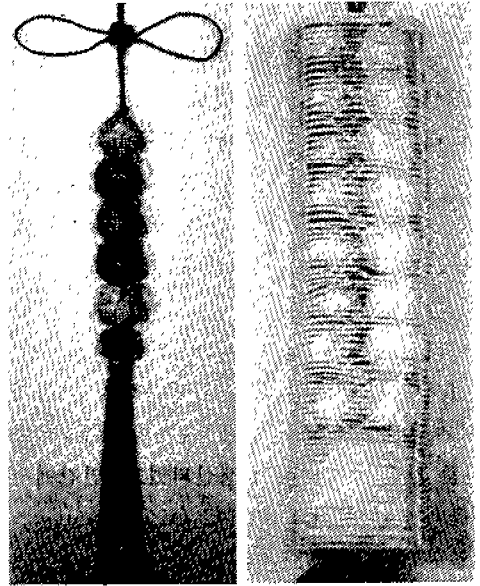
2) 향의 용도(用途)

(1) 남성의 향 사용

남자들의 애향관습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이다. 신라시대 부터 우리나라 남자들이 향낭을 패용했는데, 고려때도 그러하였으며 관리들 특히 승지(承旨)²⁷⁾의 향낭 패용은 의무사항이었다.²⁸⁾

향은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부(富)의 상징임과 동시에 귀(貴)의 상징이었으므로 남성들이 즐겨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어진 이가 사는 방에는 난향이 난다고 하여 여러가지 향 중에서도 난향을 가장 좋아하였는데, 최익현은 『면암집』에서 난향을 좋아하는 이유를 “그 향기가 널리 퍼져서 위로는 신명(神明)이 음향하고 아래로는 악취를 제거할만하며, 이(理)를 제대로 갖추어 가차(假借)를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며, 최한기(1803~1877)의 『氣測體義』에는 “모든 냄새는 바람이 불면 쉽게 흩어지고, 멈추어 쌓이면 물체에 밴다...(중략)... 어진이가 사는 방엔 난초와 지초 냄새가 있고, 어둡고 어리석은 이가 사는 방엔 혼탁한 냄새가 있다.”하였다.

향의 사용법도 다양해 향수에 목욕하기도 하고, 훈목(薰木, 향료를 옷에 뿌리고 머리를 감아 몸



【사진 2】 향선추(출처 : 석주선 박물관)
白馬尾로 엮어 속에 줄향을 넣어 만든 선추로 부채질 할때마다 향내음을 풍긴다.

깨끗이 하는것)을 했으며, 향목대(香木帶)와 향선추(香扇錘)²⁹⁾ 【사진 2】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의 상징임과 동시에 귀의 상징이었던 향은 철저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자신이 고귀한 신분임을 과시하고 자신의 인품을 상징하는 수단으로써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 목욕재(沐浴材)로써의 향 사용

『송사』와 『계림유사』에 고려 사람들은 “여름에 남녀가 함께 냇가에서 목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사람들은 이처럼 냇가에서 수시로 목욕을 하였을 뿐 아니라, 약탕(藥湯)이라 하여 여러 가지 약재를 넣은 물에 목욕을 하는 풍속이 있었으며, 또한 향내를 가미한 목욕물에 목욕함으로써

27) 권별의 海東雜錄 — 에는 “모든 승지들이 반드시 옷에 향을 뿌렸으나, 손순효(孫舜孝 1427~1497)만은 성품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향을 뿌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28) 진완길, 『한국화장문화사』 (서울 : 열화당, 1987), p.95

29) 선추는 말직 벼슬 이라도 해야만 달수 있었는데, 선인들은 부채를 단순하게 더위를 달래는 도구로 그치지 않고 손에 드는 장신구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줄향을 넣어 만든 선추는 그 속에 향이 들어 있어 부채질할때 마다 향내음을 풍겼다.

향수 사용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즉 고려인들은 난초를 우린 물에 목욕하거나 향수(香水, 芳香 물질을 넣은 물)에 목욕함으로써 몸에서 향내를 발산 시켰다.

따라서 이는 치료수단인 동시에 미용수단으로써 생활의 향상 국제화된 패션 감각과 더불어 미(美)에 관심이 있는 현대여성들에게 활용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3) 침실(寢室)에서의 향 사용

향은 남, 여를 매혹(魅惑)되게 하고, 침실(寢室)에서는 비약(秘藥) 구실을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부침실에 사향이나 난향을 사용하였다. 귀인(貴人)이 탄생할때 방안에 향기가 가득했다는 사례가 바로 난, 사향내다. 이는 부부침실에 향을 사용한 증거로서 영웅이나 귀인의 탄생설화마다 이상한 향내가 서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실의 애향풍속을 말하는 것이었다.

조선시대 부부예절서인 『방실잡의(房室雜儀)』에도 부부침실에 향을 사르되, 살림이 곤궁하여 장만하기 어려우면 굳이 장만하려 말고 예법이 그런 줄만 알라 하였다.

(4) 혼례(婚禮)때의 향 사용

결혼(結婚)을 서약할때도 역시 향을 살렸는데, 불교식 결혼식에서는 주례법사(主禮法師)가 신랑 신부를 인도하여 부처를 향해 꿇어 앉게 하고 신랑 신부의 들러리가 각각 양 곁에 선 다음 신랑신부로 하여금 각기 오분향(五分香)을 사르게 함으로써 시작된다.³⁰⁾ 일반에서도 혼례시 오분향을 받은 12명의 여종이 곱게 단장하고 고운 옷을 입고 쌍쌍이 앞서서 신부를 인도한다. 족두리 하님이 향꽃이에 꽃아서 새색시 앞에 가지고 선다.³¹⁾

(5) 향의 복용(服用)

일부 사람들은 향을 먹기도 하였는데, 고려시대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향을 복용함으로써 회춘(回春), 혹은 조정(助情)효과를 기대하였으며,

고려가요 『만전춘별사』중에 약든 가슴을 맞춘다는 대목이 있다. 복용한 향의 제조방법이나 복용법은 알수 없으나, 『고려사』에 보이는 만전향(滿殿香)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회춘 혹은 조정효과를 기대하여 자신이 향을 복용한 외에 자신과 상대하는 여인에게도 복용시켰다. 향을 복용한 기생은 회춘의 기능을 지녔다 하여 인기였으므로 많은 기생이 향을 복용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궁중에 이처럼 조정향을 복용한 향낭(香娘)이라는 여관(女官)을 따로 두었다.

또한 『규합총서』에는 몸을 향기롭게 하는법 『香身方』을 소개하고 있다.

“모향(茅香)³²⁾ 이삭과 잎을 달여 영릉향(零陵香)을 가입하여 먹고 목욕하면 몸이 더워 땀이 나도 더러운 냄새가 없으며 향기롭다”.

이외에도 국운의 흥성을 빌때, 개인의 염원을 기원할때, 독서할때, 시를 읊을때, 손님을 맞을때, 차를 마실때, 재앙을 물리치려 할때, 잔치할때, 맹세 할때,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맞을때 향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옛 한국인들은 향을 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수 향료의 제조기술도 뛰어났다. 그것은 그 만큼 옛 선인들의 문화수준이 높았고 감각이 발달했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Ⅲ. 향집의 기원과 유형

1. 향집의 기원(起源)

일반적으로 향집이란 향을 몸에 지님으로써 향기(香氣)를 풍기게 하는 귀족적(貴族的)인 느낌이 강한 장신구의 일종으로써, 향을 보관할수 있는 작은 상자나 주머니를 뜻하는 것으로 크게는 향갑(香匣)과 향낭(香囊)으로 구분할수 있다. 이 회승 편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香匣』은 “향을

30) 이능화, 『조선여속고』(서울: 대양서관, 1973), p.32

31) 전완길, 『땀5000년; 한국의 여속』(서울: 교문사, 1960), p.187

32) 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인 향모(香茅)의 풀을 말린것

담는 갑, 또는 작은 상자"라고 되어 있으며 『香囊』은 "향을 넣어 차고 다니는 말총으로 짠 주머니"라고 쓰여 있다.

향을 이용한 장신구로서 향집은 인간생활에서 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향이 집단적인 사용에서 개인의 소유로 확대되어짐에 따라 생성된 것이라 할수 있다. 즉 이러한 향이 개인의 소유는 향 자체가 고귀한 냄새를 풍길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다양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위한 수단으로써 향집을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할수 있지만 확실한 기원에 대하여는 현재로서 확실한 고증을 할수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문헌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 눌지왕대에 이미 귀부인들은 향료(香料) 주머니를 만들어 몸에 지녔다는 설이 있으며, 삼국유사의 경덕왕조에서는 「自期眸至於登位常爲婦女之戲好佩錦囊」이라 하여 당시의 왕이 훗날로 부터 왕위에 오를때 까지 마치 부녀자 들이 하는 것과 같이 늘 금낭 차기를 즐겨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신라 부인들이 즐겨 차던 금낭 속에는 향을 넣어 몸에 지니고 다닌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또한 천마총 출토 요패에서는 이제까지의 미식(尾飾)에는 없었던 약룡형(藥籠形) 장식물이 있는데 약을 넣는 룡(籠)이란 뜻으로 표면이 투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약향을 넣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수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향낭의 사용은 한층 더 사치의 대상으로 쓰여졌음을 알수 있는데, 서공의 『고려도경』 귀부조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고려(高麗) 귀가(歸家) 부녀자(婦女子) 들은 감람륵건(橄欖勒巾)에 채조금탁(采條金鐸)을 달고 금향낭(金香囊)을 찻는데 많은 것을 귀히 여겼다"라고 한 것을 보아 고려대에 오면 신라시대 보다 더 많이 금향낭을 찻던 것 같다. 특히 복식과의 관계에서 지적하고 있는바 "고려 12C초에 있어서 부녀자들의 복식은 비교적 검소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향낭에서만 사치의 대상이 되었으

며 그것이 많을 수록 부귀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향낭의 생성초기만 하더라도 남녀가 공히 허리에 차고 다녔던 향낭이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부녀자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따라서 장식적인 성격도 지니게 되었다. 고려 후기에 들어와서 몽고의 상의 영향을 받아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옷고름이 보편화 되자,³³⁾ 이제 까지 허리에 차오던 패물의 위치도 저고리 옷고름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향낭은 의상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패용 위치의 변화에 따라 사용 목적에 적합한 향갑의 이용이 보급되었을 것으로 볼수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향낭과 향갑을 포함한 향집을 신분에 관계없이 착용하기에 가능했으므로 왕은 물론 궁인 상류계급에서 평민에 이르기 까지 그 이용의 범위가 확대되어 널리 애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향집은 양반부녀자들에서 부터 시작하여 위로는 궁중에 있는 왕비까지 차는 보편성을 띄운 것인 까닭에 향집에는 종류가 많고 그 재료에 있어서도 등급이 있었다. 따라서 향집은 장신구로써 사용함도 있지만 여인 각자의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노리개와 더불어 패용한 향집은 옷의 형태에 맞추어 국가의식이나 혼례의식(婚禮儀式)등의 대례에서 생신, 경축등의 소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의식에 참여할때는 꼭 패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향집은 의복의 색채적 배합에 어울리도록 공들여 꾸밈으로 장신구로써 의복의 겉에 패용하기도 하고 겉옷속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집은 단독적인 장식(裝飾)의 의의를 가지기 보다는 의상과 노리개 장식과 더불어 우수한 미(美)를 나타내게 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은은하게 풍기는 방향(芳香)은 향집을 착용하고 있는 여인의 몸을 감들면서 더욱 고귀하고도 청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그 여인의 품격(品格)의 상징이었다고 할수있다.

33)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 교문사, 1981), p.360

2. 향집의 유형(類型)

1) 향낭(香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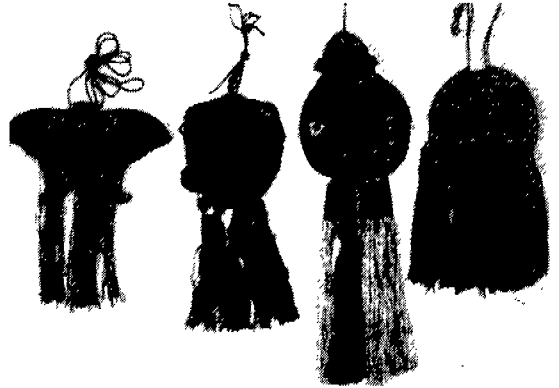
향낭이란 “주머니 낭”자와 더불어 쓰여진 것으로, 소위 향 주머니를 일컫는다. 이렇듯 향을 넣어 사용했던 주머니가 언제 부터 사용되었으며, 장식과 제조상에 있어서 어떤 변천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옛 의복에는 포켓이 없었으므로 모든 소지품은 주머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주머니는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모든사람들의 생활속에서 꾸준히 패용되었고 소원과 염원, 나아가 주술적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처음에는 실용적(實用的)인 면에서 따로 만들어 차게 된것이 장식화되어, 실용적(實用的)인 면과 장식적(裝飾的)인 면을 충분히 갖춘 장신구로써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향주머니는 그 호사가 대단하여 귀족적인 취향을 살려주었다. 의복의 색채와 어울리도록 공들여 꾸민 수 향낭【사진 3】과 감사 향낭【사진 4】으로 구별되는데, 전자는 장신구로 옷 밖에 차고, 후자는 겉옷 안에 찻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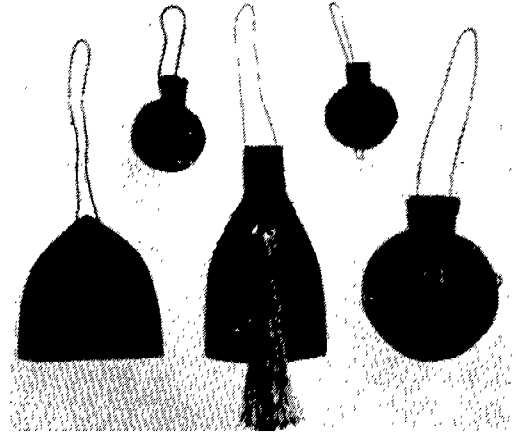
향은 주로 사향, 심향으로 박쥐모양, 네모, 여덟모, 둥근모양에 당초무늬, 아자무늬(亞字紋)등을 선각(線刻)하고, 복판에는 불로초무늬, 동자(童子)등 자개를 박은것이나 혹은 가루향을 종이에 싸서 넣었다.

향낭은 주로 한단(漢緞), 공단(貢緞), 금단(錦緞) 등의 주단 종류로 만드는데, 그 색깔은 초록색, 양초복색, 분홍색, 다홍색, 옥색 및 유청색 등 다양하며, 형태와 문양 역시 다양하여 호화롭고 아름답다. 또한 여기에는 각종 문양을 공들여 수 놓고 있어 더욱더 장식미를 더해 주고 있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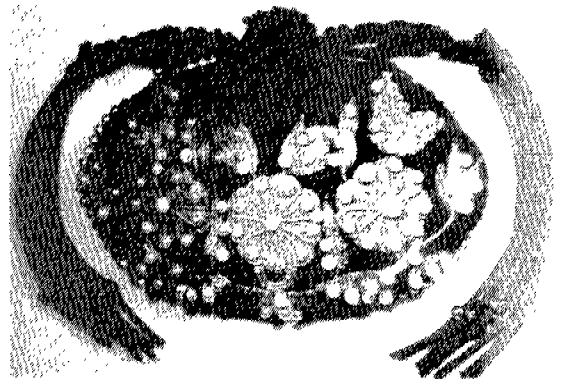
특히 향낭 중에 제일 고급은 왕비가 정장에 차는 진주 향낭이다. 남아 있는 진주향낭【사진 5】으로는 석 주선씨의 소장으로 국말 윤비(純宗妃：純



【사진 3】 수향낭(출처 : 韓國의 美)



【사진 4】 감사향낭(출처 : 韓國의 古刺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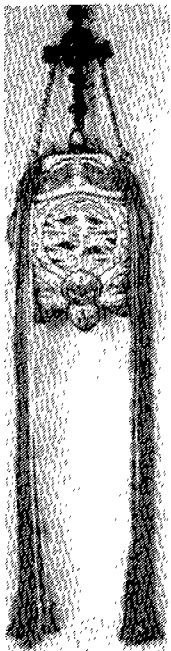
【사진 5】 진주향낭(출처 : 석주선 박물관)

34) 김희진, 前揭書, p.49

35) 유희경, 前揭書, pp.364~365

貞孝后)의 것이 있다. 이 향낭은 폭 21cm, 길이 14.5cm의 대형 진주향낭으로 홍색 운문단(紅色雲紋緞)위에 금실로 찬란하게 수놓고 그 위에 약 4mm 정도 크기의 진주 263개를 앞뒤 가득히 박은 보기 드물게 훌륭한 향주머니이다. 향기는 물론 이려니와 다홍 바탕에 진주가 알알이 반짝이는 찬란한 모습은 황홀할 정도 였다 한다. 그 속에 잘게 다진 향과 고운 가루향이 소복이 들어 있어 옛 여인들의 호사스러웠던 생활의 여운이 그대로 서려 있다.³⁶⁾

이에 반해 사향낭(紗香囊)은 평상시에도 몸에 지니는 것이 상례 였으므로 대체로 소형이며 별 장식없이 귀주머니, 두루주머니, 어깨주머니로 접은 홍갑사 민주머니들이다【사진 4】. 또한 의복에 패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안의 향기를 좋게하기 위하여 왕 침상(寢床) 양쪽에 걸어놓고 장식을 곁뻤던 수향낭은 매우 이름이 높다.³⁷⁾ 즉 방향효과를 내기 위한 궁중 실내 장식용 향낭【사진 6】도 있다.



【사진 6】 궁중실내장식용향낭
(출처 : 한국매듭)

『발기』에 보이는 향낭에는 「연화향낭」 「오식등연화향낭」 「서각」 등이 있는데, 오식등연화향낭이라 함은 갖가지 벌레의 문양을 수놓고 그위에 연꽃 문양이 새겨진 형태로 다채롭고 복합적인 조화미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장식용 향낭이 널리 이용되었는데, 이 향낭에는 여러가지 비단 끈(다회)을 매듭 짓고 끝은 숫실같이 풀어 늘인 술과 더불어 찻던 것이다. 즉 노리개의 형태로 만들어 의복에 패용했는데, 형태별로 분류하면 수 나비 향낭, 수 박쥐 향낭, 수 석류 향낭, 수 매미 향낭, 수 화준 향낭, 수 연화 향낭, 수 서각 향낭, 수 천도형 향낭 등 8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사진 3】.

이상과 같이 향낭은 비교적 부드러운 비단천이나 말총, 어피 등으로 주머니나 구물(球物)을 만들어 그 속에 향을 보관한 것으로 볼수 있다. 특히 향낭은 향갑에 비하여 제조상에 있어 기술적 수공이 용이하게 다루어질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광범위하게 애용된 것으로 간주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갑보다는 그 기원에 있어서도 앞섰을 것으로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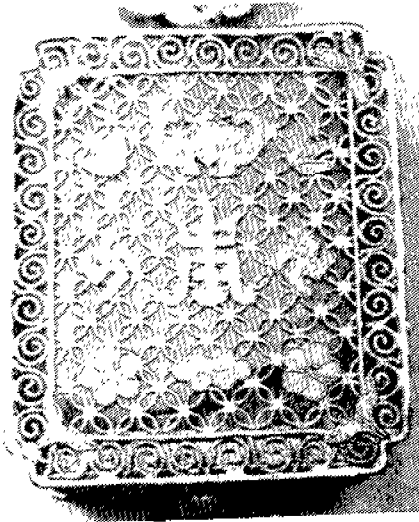
2) 향갑(香匣)

일반적으로 향갑은 대체적으로 형태가 정형적인 상자로 되어 있고 표면이 굳거나 딱딱한 재료로써 금속이나 옥, 패옥 등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으며【사진 7】, 경우에 따라서는 비단에다 수를 탄탄하게 놓고 마치 풀을 먹여 놓은 듯 네모 반듯한 상자【사진 8】로 되어 있는 것도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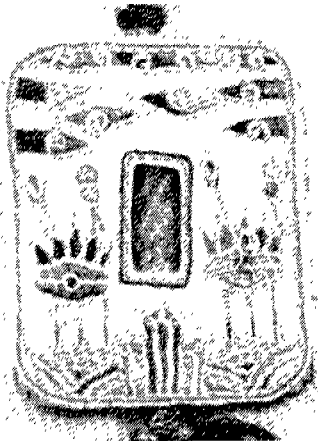
향갑의 투각은 향내의 발산을 위해서 그런것이 지만, 투각하되 아무런 무늬를 낸것이 아니라 당초무늬, 심장생 무늬 등 길상문양을 조각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함과 아울러 붉은 갑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것이였다. 갑의 겉은 금단, 비취, 옥, 밀화 등으로 각종 길상문을 곁들여 여러가지 다채로운

36) 김희진, 前掲書, p.51

37) 황호근, 前掲書, p.460



【사진 7】 금사향갑(출처 : 석주선 박물관)



【사진 8】 수향갑(출처 : 석주선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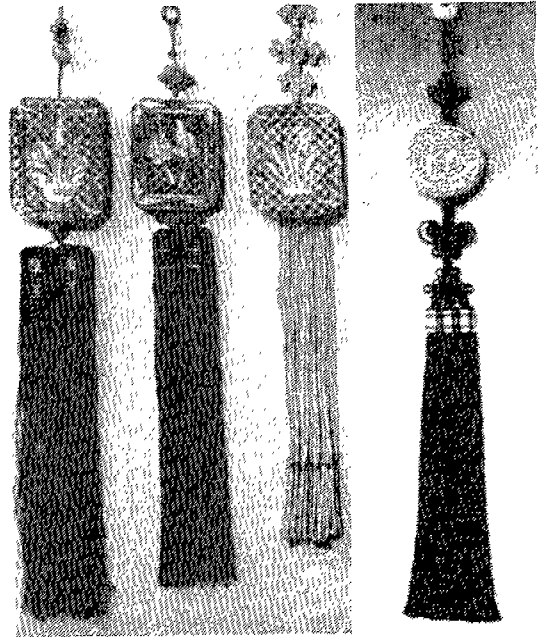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이에 은 금사로 엮어 만든 것도 있는데 섬세히 투각한 금사향갑【사진 9】, 은사향갑은 매우 아름답다. 특히 옥으로 만들어진 옥향집【사진 10】은 좀 더 귀하게 취급되어 귀족사이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간단한 의식에 도 한개로 독립시켜 차기도 했고 하절기에 취예(臭穢)를 방지하기 위해 일상시에 사용되기도 했다.³⁸⁾

주머니, 나비, 사각, 팔각, 원형의 형상위에 당초 무늬나 기하학적 무늬등 선문양(線紋樣)을 치

밀하게 세공한 은이나 금을 올린 향갑의 공통된 특징은 상하에 작은 고리가 있어 매듭의 상하단을 따로 맺고 향갑 속으로는 다회(끈)가 통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하단부가 폐개식으로 되었거나 앞쪽과 뒤쪽을 따로 떼어 만들어 그속에 향을 넣고 빼기 쉽게 되어 있는 점이다. 【사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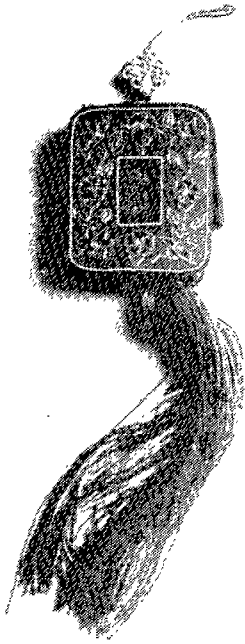
즉 향갑은 그 재료가 삼작 노리개와 비슷하며 향갑을 중간에 끼고 동다회로 매화매듭, 나비매듭, 국화매듭을 맺고 봉술, 딸기술을 쌍으로 담뿍 드리운 단작노리개이나 후에는 삼작 노리개중 하나라도 패용하였다. 또한 삼작노리개의 하나를 따로 패용하거나 삼작의 하나가 아닌 단독으로 된 노리개를 「단작 노리개」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향갑을 애용하고 수향낭을 정성들여 만들어 왔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향갑은 단작 노리개의 형태로 만들어져 장식적인 면 외에도 실용성도 겸한 것으로 여인들 사이에 많이 애용되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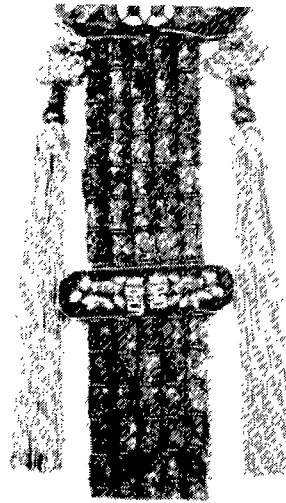


【사진 9】 도금니사각향갑노리개 【사진 10】 옥향갑노리개
(출처 : 태평양 박물관) (출처 : 韓國의 美)

38) 석주선, 『한국복식사』 (서울 : 보진재, 1980), p.268



【사진 11】 수향갑노리개
(출처 : 한국자수박물관)



【사진 12】 비취발향갑노리개
(출처 : 석주선 박물관)

3) 향괴(香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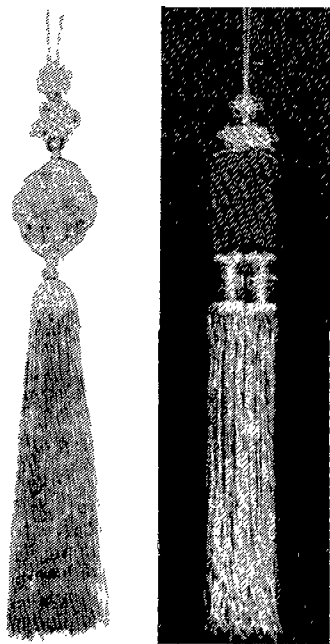
향괴는 향덩어리를 말하는것으로 발향, 줄향, 조각향의 형태로 만들어 패용한것이다. 즉 향과 약가루를 섞어 만들어진 충향(沖香)을 갑(匣)이나 낭(囊)에 넣지 않고 사각형, 팔각형, 원형, 박취형 등의 고체향으로 만들어 향덩어리 자체에다 색을 입히거나 조각을 하여 각종 실에 꿰어 차고 다닌 장신구이다. 특히 박취형 향을 실에 꿰어 만든것을 박취향이라 했고, 향의 모양이야 어떻든 금사에 꿰는 것은 금사향(金絲香)이라고도 하였다.

발향 중에는 향을 둥글게 비벼서 토막토막 잘라 구슬발과 같이 실에 꿰어 찬 것도 있다. 향낭과 향갑에 넣은 향이 주로 사향인데 반하여, 발향은 대부분 한충향이다. 간혹 향나무를 그대로 이용하기도 한다. 향괴의 종류로는 비취발향, 줄향, 조각향 등이 있으며, 비취발향【사진 12】은 향과 약가루를 섞어 만든 충향 공작꼬리털을 입히고 구슬발처럼 토막토막 이은 사이마다 금환(金丸)을 끼워 만들었다. 줄향【사진 13】은 한충향을 환(丸)으로 만들어 홍·황·녹·백의 사색으로 도금하여 각색 마다 27개씩 모두 108개의 소환을 만들어 염주 모양



【사진 13】 줄향노리개
(출처 : 韓國의 美)

을 하고 있다. 조각향【사진 14】은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다. 팔각으로 만든것, 타원형으로 만든것, 장방형으로 만든것, 나비형으로 만든것 등이 있다.



【사진 14】
조각향노리개
(출처 : 석주선,
태평양 박물관)

IV. 향집의 機能 및 特性

향집은 기능적인 실용성 이외에도 그 자체가 갖는 독특한 미적 특징과 吉祥의 寓意, 주술적인 벽사의 목적으로 착용되었던 장신구 중의 하나로 실용성과 심미성에 입각하여 그 활용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실용적 측면(實用的 側面)

1) 약용(藥用)

향갑이나 향낭에 넣었던 향은 단순히 향기를 낼 수 있는 향료 자체로 쓰였던 것이 아니라 약용향으로써 위급시에 비상약으로써 역할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김희진씨에 의하면, “향갑속에는 주로 사향을 넣었는데, 뒤뜰이나 동산을 거닐때 사향내는 뱀의 범접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향을 갈아 술이나 물에 타서 마시면 급한 체증에 효험이 있었다” 하

니 휴대용 구급 약품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옛날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적 흥분제 또는 최음제로도 사용되어 왔는데 이와 더불어 강심회소제(強心回蘇濟)로도 사용되어 왔다. 즉 사향은 막힌것을 뚫어서 정신이 깨어나게 하며,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경락(經絡)이 통하게 하고 맺힌 것을 풀어지게 하여 통증을 멈추게 하는데 예를 들면 증풍으로 인사불성이 된 사람을 깨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호박, 금패로 된 패물을 갈아 응급용 지혈제로 대용했다는 구전을 미루어보면, 이러한 패물을 몸에 지니는 것은 원래 사치가 아니라 생활에 임하는 한 마음의 마련이며 부덕의 소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강(藥石)은 뱀에 물렸을때 그 상처부위에 대고 있으면 독이 쉽게 빠졌다고 하며, 한충향, 옥추단 등은 급작스럽게 토사파관을 일으켰을때와 같은 위급시에는 응급치료의 묘약으로 쓰였다고 한다.

그 밖에 향은 몸에 지니 좋은 내음을 발산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옷 갈피에 넣어 방충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따라서, 향집이야말로 약품을 휴대하는 구실도 하였던 것으로서, 사치성 뿐만아니라 실용성도 겸했던것으로 펴이나 선인들이 현명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2) 부적용(符籙用)

인류는 자연의 위협과 악령, 질병 등으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었으며, 모방유사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부여하거나 행운을 불러 일으킨다는 믿음을 주는 일련의 상징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구체적인 사물(Object)로 굳혀졌다.³⁹⁾

39) 김연미, “장신구의 주술적 요소와 상징”,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6), p.3

이와 같은 믿음은 초기의 모든 장신구에 적용되어 호신부(護身符)⁴⁰⁾로 나타났다. 호신부는 초기에는 단순하게 한가지의 주술적(呪術的) 기능을 지닌 형태로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능한 많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아래 다양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주술적인 요소를 결부시켜 사용함으로써,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호신부를 창조해내었는데 이는 여러가지 요소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이 상호작용하여 그들이 지니는 주술적 효력을 증대시킨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즉 장신구에 사용된 색채, 재료, 형태가 상징하는 바는 각기 다른데, 호신부의 사용이 의식화, 체계화 되면서 재료마다 색조마다 저주를 내리는 힘과 행운을 가져다 주는 힘을 지녔다고 여겨져 재료와 색채간의 상징체계(symbology)를 형성하였으며 형성된 상징체계의 일정한 법칙아래 호신부가 제작되었다. 이외에도 호신부의 재료로는 성적(性的) 상징으로 쓰여진 자패(cowrie), 약물, 향료 등이 있다.

향집에 있어서 벽사⁴¹⁾의 능력은 길상의 의미 강조와 주술적 능력의 부여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볼 때 주로 향집의 형태, 문양, 색채, 재료 이외에 향집에 들어 있는 향료의 향취등에서 나타난다.

향집에 사용된 형태와 문양은 단순한 장식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상징성, 즉 오래살겠다는 장생(長生)에의 집착과 좀 더살겠다는 다복(多福)에의 욕구, 그리고 이러한 기본집착을 방해하는 벽귀와 싸우는 벽사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향집에 사용된 색채 역시 원색이나 색동을 사용하여 액(厄)을 피하려는 주술적인 성격이 강하게 응집되어 있는것을 볼수있다. 원색이나 색동 등 화려한 색을 사용함으로써 여러사람의 시각에 노출시

켜 액의 접근을 막으려 한 의지가 엿보인다. 향집의 재료로써 옥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벽사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즉 옥을 몸에 지니 장식을 하면 약효가 나타나 무병장수하며 잡귀를 물리칠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향집속에 들어 있는 향료의 향취(香臭)를 이용하여 악귀의 근접을 막았는데, 병허각 이씨의 『규합총서』에 호신향방(護身香方)이 소개되어 있다.

조선시대 내의원에서 만들어 진상한 벽온단(僻溫丹-향)을 설날 이른아침에 한심지 피우는데 이는 열병을 물리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벽온단이 없는 향간에서는 대신 빨간 주머니를 찼다.⁴²⁾

이외에도 수자문(壽字紋)이니 복자문(福字紋) 등의 문자(文字)에 나타난 직설적인 표현의 내면에는 길상의지를 넘어서 주술적 능력까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장신구로써 착용된 향집 역시 당시 사람들에게 천재지변을 비롯한 자연계의 변화에 따른 두려움과 인간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불행한 일들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한 마음의 위안으로 쓰여져 온 것을 볼 수 있다.

3) 향수대용(香水代用)

의생활(衣生活)에 있어 옷과 향(香)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스스로 좋은 내음을 발산하여 악취를 제거해 주며, 또한 방충에도 도움이 된다.⁴³⁾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몸에 향을 지니기 즐겨한다. 현대 여성들은 액체로 된 향수를 사용하지만, 향수가 없던 옛날에는 몸에 향을 지니는 방법으로, 주머니에 향을 넣어서 차거나 혹은 구슬모양을 만들어 금이나 색깔을 올려 줄줄이 꿰어 색

40) 호신부(護身符; amulet)란 일반적으로 부적(符籙)으로 칭해지며, 어떤 주술적인 목적에서 착용하고 다니거나, 死者들의 곁에 놓여지거나, 그것의 보호적인 본능때문에 집에 놓여지는 사물이다.

41) 사귀(邪鬼)를 물리친다는 뜻

42) 전완길, 『옛5000년 : 한국의 여속』 (서울 : 교문사, 1960), pp.187~188

43) 석주선, 前揭書, p.136

색의 술을 달아 장신구로 차기도 하였다. 즉 향기 질은 식물의 줄기나 잎, 뿌리 따위를 그늘에서 말려 가루낸것 혹은 향나무를 잘게 토막낸것, 광물 질, 동물의 일부를 고풍 혹은 분말 형태로 제조한 향료를 향낭이나 향갑 속에 넣어 향수대용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현대 여성들의 기호품인 향수는 향료를 뿌림으로 해서 옷이 상하고 향내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 옛 선인들의 향료 이용법은 현명했다고 볼수있다. 또한 몸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향수를 뿌리는 서양의 경우⁴⁴⁾와 비교하여 볼때 우리나라의 향낭, 향갑노리개가 움직일때마다 발산되는 부드럽고 은은한 향은 한층 기품있는 멋을 돋보이게 했다고 할 수 있다.

2. 장식적 측면(裝飾的 側面)

1) 조형미(造形美)

(1) 형 태

향집은 크게 향낭, 향갑, 발향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이들을 형태상으로 구분하자면 추상형 향집과 구상형 향집으로 구분할수 있다.

추상형 향집에는 각형향집이라 하여 각모각형, 둥근모각형, 쌍사모각형, 육각형, 기타형이 있고, 원형향집이라 하여 원형, 타원형, 줄형으로 구분된다.

동, 식물의 형태를 가지는, 구상형 향집에는 호접(胡蝶)과 매미형태의 동물형 향집, 석류, 천도, 가자(茄子)형태의 식물형 향집, 그리고 낭(囊), 투호(投壺), 화준(花樽), 서각(犀角), 밀화(密花), 연엽(蓮葉) 등 자유스러운 형태의 기타형 향집으로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향집을 중심에

두고 여러종류의 매듭과 술로 장식하여 조형미를 더해주고 있다.

(2) 재 료

일반적으로 향집의 재료로는 금속류, 옥석류, 보패류, 칠보류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자마노, 산호, 밀화, 호박, 옥, 도금, 은 등이 애용되었으며, 이들이 갖는 색채의 아름다움은 복식과 조화를 이루려 하는 심미적인 목적과 색채의 상징성이 중시되었다. 특히 옥(玉)은 인간이 맨 먼저 사용한 장신구였으며, 당시의 귀물(貴物)로 장식적인 심미성 뿐만아니라 착용자의 인품까지 상징했으므로, 옥의 사용은 왕을 비롯한 상류층의 전유물로 규정되었다.⁴⁵⁾

또한 향낭, 향갑을 만드는데 쓰였던 직물로는 공단(貢緞), 갑사(甲紗), 면주(綿紬)등으로 주로 견직물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 문 양

한국의 전통문양은 오랜동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풍토에 맞게 나름대로 소화하여 한국적인 문양을 토착화시켜, 독창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소재에 있어서의 사실성과 종류의 다양성이 특징이다.⁴⁶⁾

조선시대 향집에 즐겨 사용하던 문양을 대별하여 보면 식물문, 동물문, 길상 어문, 기하문, 자연문 등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비록 이들의 소재는 같다 하더라도 표현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있는 모양들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신구에 사용된 모티브는 문양자체의 장식성과 함께 문양의 상징성이 장식의 동기가 되고 있는데 특히 향집에 사용된 문양은 장식적인 의도 외에 현세의 복(福)과 벽사의 추구에 있다.

44) 16세기 이탈리아에서는 쥘이 강한것을 장갑에 뿌리는 것이 유행 하였으며, 16세기 이후 프랑스에서는 세탁하는 법이 일반화 되지 않아 과거 상류층이 사용했던 쥘料사용이 이 시기에 와서는 體臭除去를 위한 쥘水로서 보급되어 보편화 되었다. 또한 17세기 바로크 시대는 대단히 불결한 시대로 불리워지는데, 이로인해 쥘이 강한 쥘水가 널리 이용되었다.

45) 금기숙, 前掲書, p.152

46) 이선재, 『유교사상과 의례복』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2), p.62

(4) 색(色)

향집의 유물에서 보이는 색채는 주로 적색계, 황색계, 청색계, 녹색계, 금색계, 은색계 등 다섯 종류로 구분되며 이 색채들은 향집의 주체로 사용된 재료의 색과, 장식으로 부착된 매듭과 술의 색에서 볼수 있는 색들이다.

조선시대 복식중 색동 옷감의 사용이 많았음을 볼수있는데, 색동에 사용된 색의 배합이나 배열에는 음양의 색인 청(靑), 적(赤)과 오행색인 청, 적, 황, 백, 흑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한 오방색은 역귀(疫鬼)를 쫓을때 사용되고 오방색 중에서도 양기(陽氣)가 왕성한 적청색이 민간신앙에서 양귀법(攘鬼法)으로 등장하였다. 장신구에서 원색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예로 여성들의 노리개를 들수 있는데, 향집 노리개 역시 화려한 원색이 사용되었음을 볼수 있다. 향집에 사용된 매듭과 술의 색을 보면 주로 빨강, 파랑, 노랑등의 원색을 사용하여 색동의 형태로 된것이 많았는데 이 역시 원색조화의 극치를 보이는 색으로 오행사상과 관련된 주술성이 강하게 내포된 듯하며, 미적인 감각과 함께 화려함이 돋보인다.

또한 향갑의 문양 사이로 비치는 색, 즉 향을 산갑사 역시 빨강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볼수 있는데 이 역시 향취와 함께 적색이 벽사의 수단으로 사용된듯 하다.

이와같이 향집에 사용된 색 또한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하여 귀신을 쫓기 위한 즉 벽사의 수단으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으며, 술에 사용된 색에 있어서 색동의 원색조화 역시 오행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주술성이 강하게 내포된 것을 알 수 있다.

(5) 장식(매듭, 술)

향집의 형태는 주체와 부속부위로 구성되는데, 주체는 금, 은, 주, 옥 등으로 된 공예적 조형물을 말하는 것이며, 부속부위는 띠돈, 다희, 매듭, 술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주체를 보다 아름답게 장식해 주는 것이다.

띠돈은 옷에 걸기 위한것으로 최상단에서 주체를 따로 연결한 다희(삼작노리개인 경우 다희가 세줄이됨)를 한 곳에 모아서 뒷쪽에 붙어 있는 고리에 걸게 되어 있는데, 향집노리개에는 띠돈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것을 볼수있는데, 이것은 향집이 주로 단작 노리개의 형태로 패용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매듭은 주체를 중심으로 상하에 있어 주체를 보다 아름답게 장식해 주며 그 밑에 있는 술은 아름다운 빛깔로 향집 전체의 조화를 맞추어 색색으로 달려 있다.

술은 다희의 색채와 매듭의 구성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그 밑에 달려 유유한 선의 흐름으로 향집과 유소(流蘇) 전체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술의 존재를 무시할수 없다. 즉 다희, 매듭, 술의 3가지가 조화를 이룰때 비로소 아름다운 향집노리개로 완성될 수 있다.

2) 장식미(裝飾美)

향집은 시각예술의 한 분야로서 일반 조형물과는 달리 복식의 일부분으로서의 심미성을 지니고 있다. 즉 향집의 재료, 형태, 문양, 색채 등을 통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찾아 볼수 있다. 향집은 향을 휴대하기 위한 실용적인 용도 외에도 색채나 자수, 문양, 매듭, 술 등의 장식적인 요소들을 활용함으로써 복식에 화미함을 더했으며, 향집에 표현된 미적특징은 의복의 형태나 색, 문양 등의 미적 특징과 일맥상통하는 성격을 보인다.

향집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주체와 부속부위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수있는데, 주체의 형태와 관계없이 부속 부위는 공통적으로 길게 늘어지는 흐름을 갖는것이 특이하다. 향집노리개의 다양한 매듭 부분은 짧은 저고리 길이를 닮았으며, 술의 부분은 긴 치마길이를 닮았는데 이들 장식이 이루는 관계는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으로써, 의복전체에 조화를 준다. 또한 술은 행동할때 움직이는 효과로 의복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하며 의복의

단조로운 분위기를 술의 리듬에 의해 정적인 분위기를 동적인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준다. 발향노리개【사진 12】의 몸체를 이루는 긴 발향 부분과 부속물인 술장식으로 이뤄진 구성도 이 방법을 따르고 있다. 발향 부위의 비취색은 오색자수로 장식된 중간의 연결 부분과 시각적으로 매우 현란한 색채조화를 보인다. 발향의 긴형태는 술의 흐르는 선과 같은 형식감정으로 표현되었으며, 오색의 술장식은 바람에 날리는 울동감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이는 복식에 표현된 선의 흐름이 발향노리개에 도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발향노리개의 이러한 구성원리는 다른 향집노리개의 형성원리와 공통점을 보인다. 또한 수각향갑노리개【사진 11】의 표면에 시문된 문양은 연화와 목단을 연상시키고 금사로 문양의 윤곽을 이룬 선묘는 좁은 장식 공간에서도 풍부하며 세련된 아름다움을 보인다. 향갑의 위에는 국화매듭이 부착되었으며, 향갑 아래에 부착된 오색의 딸기술은 향갑의 다홍색과 강한 원색조화를 이루며 화려한 아름다움을 보인다. 특히【사진 10】에서도 보이듯이 정교하게 투각된 향갑의 문양사이로 비치는 향을 싼 종이의 다홍빛과 매듭과 술의 색인 남색의 보색조화는 섬세한 도안의 균형미와 더불어 한층 기품있는 멋을 돋보이게 한다. 【사진 15】의 마미(馬尾)각향집 노리개는 黃馬尾로 위은 향집에 약용향이 들어 있는 것으로 여름철 얇은 모시 옷과 한층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데, 도래매듭과 장고매듭으로 장식되고 여유있게 늘어진 홍색술이 조화미를 더해주고 있다.

『끈목과 매듭』에 “향갑속에는 홍갑사를 한겹 곱게 바르고 그속에 향을 꿰게 되어 있으므로 정교하게 투각된 향갑의 문양 사이로 내비치는 다홍빛과 백옥, 비취빛의 조화는 섬세한 도안의 균형미와 더불어 한층 기품있는 멋을 돋보이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원 신윤복의 미인도【사진 16】에는 이런 장신구를 찬 여인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주와 백의 색으로 얼룩진 세계의 향갑이



【사진 15】 馬尾각향집노리개
(출처 : 석주선 박물관)



【사진 16】 미인도(출처 : 한국의 복식)

끈에 꿰어진것 한줄을 고름에 달고 있다.

향집에 사용된 색채로는 주로 화려한 원색이 사용되었음을 볼수있는데, 향집의 주체나 부속부분에 주로 사용된 원색은 담백한 의복색과의 조화를 이룬 심미적인 장식성과 함께 벽사를 위하여 애용되었다고 할수있다. 색체에 나타나는 벽사미는 원

색의 사용이나 색동 등의 원색조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가슴에 늘어뜨린 술 장식에 보색인 적색과 녹색을 함께 사용하여 강렬하고도 화려한 색채로 조용한 의복색에 명량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강조색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렇듯 화려하며 고귀한 재료와 술에서 표현되는 현란한 원색들은 다채색의 의례복식에서는 화려한 원색의 조화를 이루고, 담백한 평상복에서는 의외로 과격적인 색채조화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화려한 색채의 아름다움은 복식과의 조화를 위한 심미적인 목적을 갖는 반면, 벽사의 상징성까지 함축하고 있다. 또한 향집의 문양들은 직물의 표면에 시문된 문양과는 달리 입체적인 조형으로 당시대인들의 길상의 염원과 미적욕구를 충족시켰으리라 추정된다.

이와같이 매듭이나 양각, 음각, 투각의 기법, 자수등을 적절히 이용한 향집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나, 의복에 패용함으로써 전체복식과의 조화를 증시한 심미적인 장식성은 더욱더 우수한 장식미를 나타냄과 동시에 은은하게 풍기는 방향은 향집을 착용하고 있는 여인의 품격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V. 향집 紋樣에 나타난 象徵性

향집에 시문된 문양역시 단순한 장식의 효과만이 아니고 그것을 애용하고 항상 자기몸의 분신같이 여겨온 조상들의 염원의 상징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향집에 나타난 문양의 상징성은 오래 살겠다는 장생(長生)에의 집착(執着)과 좀더 잘살겠다는 다복(多福)에의 욕구, 그리고 이러한 기본집착(基本執着)을 방해하는 벽귀와 싸우는 벽사사상인 것이다. 향집에 사용된 대표적 문양의 상징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물문(植物紋)

1) 연화문(蓮花紋)

연화문은 세상의 진리실상의 묘법(妙法)을 연꽃에 비유하여 안은 곧고 비어 오직 한 마음을 가르치고 밖의 넓은 앞세는 우주만방에 통한다. 이러한 연화문은 꽃의 생태(生態)인 진흙 속에 피어 있으면서도 이에 더럽혀지지 않고 요사스럽지 않아 그 고귀함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 한다. 또한 한여름 연화(蓮花)에 가득피어 청향(清香)을 내뿜는 군자연(君子然)한 기품이 선비들의 호상(好尙)하는바 되었고, 일반에게는 건강과 장수와 행복 등을 상징하는 꽃무늬이다.⁴⁷⁾

2) 사군자문(四君子紋)

사군자(四君子)는 매(梅), 난(蘭), 국(菊), 죽(竹)으로 강인한 절개의 지조(志操)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화문은 여성의 절개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난(蘭)은 우정과 고아(高雅)를 상징하는 문(紋)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국화(菊花)는 인생의 풍부한 청춘을 나타내며 고결(高潔)과 고상함을 상징하면서 양반사회의 귀족적 취향에 적합한 꽃이다. 죽(竹)은 정절과 지조를 상징하는데 죽문은 십장생문중의 하나이기도 한것으로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의 곧고 질기며 불변한 정절과 허심탄회한 생리를 잘 표출시켜 주고 있다.⁴⁸⁾

3) 목단(牡丹)

목단은 그 색채와 더불어 모양이 크고 화려하여 화중왕(花中王)으로 불리웠으며, 그로인해 부귀를 상징하여 부귀문이라 불리운다. 신라 선덕여왕시 당(唐)으로 부터 전해진 것으로서 부귀영화나 길상의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 목단문은 풍만한 화변(花辯)으로 인해서인지 서민들에

47) 은영자, "조선시대 노리개에 반영된 여성의 가치관 고찰",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83), p.21-

48)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 이화여대 출판부, 1975), p.52

게 까지도 애용되어 완전히 조선시대에서 소화 흡수시킨 조선의 상징적인 꽃으로서, 화려하고 풍만한 장식성 때문에 장식문, 직물문, 수문 등으로 많이 사용된 듯 하다.

4) 석류문(石榴紋)

석류(石榴)는 탐스러운 씨가 풍부한 시각적인 감정에 의해 문양화한 것으로 다남(多男)의 대표적인 소재이며,⁴⁹⁾ 다른 열매와는 달리 열매가 한 덩어리로 뭉쳐있어 자손이 흩어 지지 않고 뭉쳐 의좋게 지낸다는 바램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여인들의 장신구, 의상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동물문(動物紋)

1) 용문(龍紋)

옛 부터 동양에서의 용은 제왕의 권위로서 상징되고 길조의 상징으로서 하나의 동물 형상을 한 신적인 존재로서 숭배된 대표적인 영수(靈獸)의 상상 동물이었다. 용문은 모든 무늬에서 영기(靈氣) 무늬와 같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용이 바다에서 살며 비, 구름, 바람을 자유롭게 조작한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며 권위와 신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인다.⁵⁰⁾ 따라서 문양은 천자(天子)와 왕후(王后)를 상징하여 주로 왕실에서 사용되었으며 남성적인 위엄을 나타낸다. 용은 덕(德)이 물과 샘에까지 이르면 곧 황룡이 나타난다고 한데서 황룡을 수 놓은 낭(囊)을 찾던 것이라 한다.

2) 박쥐문(편복문)

박쥐는 번식성이 강해서 수(壽), 부(富), 귀(貴), 강녕(康寧), 다남(多男)의 오복중(五福中) 다남(多男)의 상징으로 편복문을 썼으며 500~

1000년을 산다는 장수의 뜻에서 조선시대 복신(福神)의 사자로 여겨 강한 길상동물문으로 애용된 듯 하다. 이들 편복문은 회화적이기 보다는 도안적인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박쥐의 생태와는 달리, 대부분 바른 자세로 표현되어 있다.

3) 나비문(胡蝶紋)

호접(胡蝶)은 창조를 뜻하며 인간이 영원히 추구하는 변신의 상징으로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흔히 나타나는 문양으로 지배계급 보다는 서민층이나 부녀자들이 애용했던 화려한 문양으로 단독으로 쓰이기 보다는 다른 길상문과 결합하여 길상적 의미를 강조하였다.⁵¹⁾

4) 봉황문(鳳凰紋)

봉황은 영조(靈鳥)중의 으뜸으로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새로 상상적(想象的) 단조(瑞鳥)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덕(德), 인(仁), 신(信), 의(義), 정(正)을 상징하는 오색빛의 털과 오음(五音)을 갖춘 이 단조는 타인과 현세의 인간과의 사이에 고통의 매개를 담당하는 인애와 자비의 새로서 어진 임금이 등극하여 세상이 태평할때 날아와 벽오동 가지에 깃을 친다고 믿어왔다. 봉황이 문양으로 사용된 것은 중국 단조시대부터인데 한대 이후 서방으로 부터 전해진 공작의 화려함이 가식되어 당대에는 화려의 극을 다한 사실적인 봉황의 문양이 완성되었다.

5) 귀신문

귀(鬼)는 보통 우리말로 도깨비 이며, 이를 신격화 시켜 귀신이라 하는데, 이는 신통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귀신문은 형상(形象)이 도깨비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은현자재(隱顯自在)의 괴물(怪物)으로써 사람을 해치는 악물(惡物)

49) 정현주, "조선시대 복식문양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p.16

50) 백영자, "이조시대의 문양을 중심으로한 자수노리개의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0권2호, 1972), p.817

51) 김수석, "한국적문양의 고찰과 조형적 분석", (속대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제7호, 1968), p.42

벽신(辟神)으로 되어있다. 길상래복(吉祥來福)을 회구하는 인간을 도와준다는 사고방식에서 많이 쓰였으며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품고 있던 이상을 구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나쁜 귀신에 의하여 저질러진다고 믿었던 것이므로 나쁜 귀신을 물리쳐줄 벽사신이 꼭 필요하였던 것이며 그것은 귀신문으로 표현되었다.⁵²⁾

3. 길상어문(吉祥語紋)

길상(吉祥)을 내용으로 하는 한자문(漢字紋)을 무늬화하여 사용한것으로, 예를들면 부(富)·귀(貴)·다(多)·남(男)·수(壽)·복(福)·강(康)·녕(寧)·희(禧) 등이 있다. 이것들은 단독으로 사용한 예가 많았고, 때로는 수복강녕(壽福康寧), 다남자(多男子), 부귀다남(富貴多男) 등의 연속된 문자도 있었다.⁵³⁾ 이러한 길상어문(吉祥語紋)은 단순히 길상적 내용만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식적으로 처리, 표현되었으며 길상사상(吉祥思想)이 유행하고 문자를 숭배하던 조선시대에 와서 성행하였다.

4. 자연문(自然紋)

1) 운문(雲紋)

운문은 삼국시대 이전 부터 발달되어온 문양으로 조선인들이 가장 애호하며 응용해온 문양이다. 이 운문은 영원히 하늘을 떠도는 풍류성과 그 형태가 천태만상하여 신비로운 요소가 많아 우리나라에서는 신선사상에 입각한 십장생중의 하나로 다른 길상문양과 조화를 이루어가며 다양하게 쓰여져 왔으며, 불교에서는 극락세계 즉 천(天)을 상징하기 때문에 문양으로 사용되어왔다.

2) 십장생문(十長生紋)

자연계에 산재(散在)해 있는 열가지 장수물(長壽物)을 한데 묶어 형상화한 것으로 구성요소로는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태양(日), 맑고 깨끗함을 일러주는 물(水), 세속을 벗어나 풍류를 즐기는 듯한 구름(雲), 굳은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松), 곧고 강한 의지의 대나무(竹), 탈속(脫俗)하여 높은 기상을 지닌 학(鶴), 선과 평화를 상징하는 사슴(鹿), 장생불노(長生不老)하는 불로초(不老草), 수호(守護)와 복(福)을 상징하는 거북(龜), 불변하는 산의 열가지”를 말한다.⁵⁴⁾ 십장생문양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해 오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주술적,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그 형상을 사실적 혹은 추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 생존의 안락과 영복을 소원하였으며, 또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벽사의 의미도 내재되었다.

VI. 결론 및 제언

향집은 향을 몸에 지님으로써 향기를 풍기게 하는 귀족적인 느낌이 강한 장신구의 일종으로서 향집은 의복에 패용함으로써 복식의 장식적 효과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향긋하면서도 은은한 방향을 위시하여 약용 및 주술적 기능 등 다양한 성격을 띠며, 실용을 겸한 장신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향을 넣어 사용했던 향집의 기능성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측면과 장식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향집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최초의 향사용은 훈향(薰香)으로써, 연기로 인해 몸에 붙어있는 잡귀를 陜고 깨끗한 몸으로 종교의식을 치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점차 향은 인체의 체취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냄새

52) 신영훈, 前揭書, p.189

53) 심미경, “조선왕조 후기 노리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 p.84

54) 김재원, “이조십장생문양의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75), p.7

를 풍기는것에 착안하여 점차 화장료로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 역시 불교의 영향을 받아 향료가 들어왔으며 향을 피우면 부처님이 내려와서 기원하는 이의 소망을 들어준다는 믿음으로 인해 향료의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② 초기의 향료는 향내나는 식물, 즉 향기 좋은 꽃잎이나 줄기를 말려 분말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점차 향료이용의 발전을 보아 유지(油脂)에 배합시켜 만든 향유를 사용하게 되었고 1307년 헝가리 향수라 불리우는 최초의 알코올 향수를 발명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알코올 성분의 합성향은 1872년 유럽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처음소개되었다.

③ 우리나라의 향 사용관습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남성의 향사용은 독특한 현상으로 신라시대 부터 남자들이 향낭을 패용하였는데, 향은 귀한 물건으로 부(富)와 귀(貴)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자신의 인품을 상징하는 수단으로서 향을 사용였다. 이외에도 목욕시 향을 이용했으며, 침실에서, 혼례시, 재앙을 물리치려 할때, 개인의 염원을 기원할때 향을 사용한다 옛 선인들의 문화수준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④ 향집은 초기 종교 의식용품으로써 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향을 지니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자신의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위한 화장료으로써의 향물질을 지니기 위한 수단으로 생성되었다고 보며, 인간생활에서 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향집이 널리 애용된 듯하다.

⑤향집을 몸에 지니기위해서는 의복에 패용하기 시작했을 것이며, 의복에 패용함으로써 의복과의 조화 즉 장식적인 미를 고려하여 점차 장식적인 성격을 띠게 된것으로 본다. 따라서 장신구의 역할을 하게된 향집은 의상의 변화와 더불어 패용의 위치나 형태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즉, 초기 허리에 찼던 향낭은 고려 후기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허리에 차오던 패물의 위치가 저

고리 옷고름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향갑노리개의 유형으로 변화되었다고 사료된다.

⑥ 향집은 다양한 성격을 띤 장신구로서 그 기능을 발휘했다. 즉 실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첫째, 약용(藥用)으로써 향집속에 넣었던 향은 단순히 향기를 낼수 있는 향료자체로 쓰였던 것이 아니라 약용향으로 위급시에 비상약으로써의 역할을 다했으며, 둘째, 부적용(符籙用)으로써 당시 자연의 위협과 악령, 질병 등으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삶을 보장 받기 위하여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었는데 향집 역시 호신부의 형태로 착용되어 향집의 형태, 문양, 색채, 재료, 향취등에서 주술적 성향을 띤것을 볼수있었다. 셋째, 향수대용(香水代用)으로써 몸에 향을 지니기 즐겨했던 당시 여성들의 향료 이용법으로 향낭, 향갑노리개가 움직일 때마다 발산되는 부드럽고 은은한 향은 한층 기품있는 멋을 돋보이게 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인이 애용하는 알코올 향수의 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과 천연향료가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때, 또한 향수를 뿌림으로 해서 옷감이 상할수 있다는 점에서 향집을 현대적인 장신구로 재현하면 활용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

또한 장식적 측면에 있어서, 향집은 그 자체만의 심미성과 더불어 의복에 패용함으로써 복식의 조화미를 간과할수 없다. 즉 향집의 색채나 자수, 문양, 매듭, 술등의 장식적인 요소들을 활용함으로써 복식에 화미함을 더했으며, 향집에 표현된 미적 특징은 의복의 형태나 색, 문양등의 미적 특징과 일맥상통하는 성격을 보인다. 복식과의 조화를 중시한 향집의 심미적인 장식성은 더욱더 우수한 장식미를 나타냄과 동시에 은은하게 풍기는 방향은 향집을 착용하고 있는 여인의 품격을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선인들에 의하여 디자인되고 제작된 향갑, 향낭, 향피 등

훌륭한 향집을 만든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향료가 액체로 변화하면서 종래의 은은했던 방향에 비하여 자극적이면서도 독특하고 새로운 향료의 도입으로, 또한 의상의 변화에 따라서 본래의 의의를 점차 상실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더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선인들의 훌륭한 전통을 유지, 발전시켜 현대 의상에 어울릴 수 있는 장신구 즉, 현대 의상에 악세사리로 사용되는 코사아지, 팬던트 등에 천연향료를 이용하여 옛 향갑노리개의 재현을 시도해 볼수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따라서 현대적 장신구로 이용할수 있는 향집디자인 연구가 뒤 따라야 하겠다.

참고문헌

1. 저 서

- 국립중앙박물관 편저, 『한국의 미 ; 의상, 장신구, 보』, 서울 : 통천문화사, 1988.
- 국어국문학회, 『새국어대사전』, 서울 : 송강출판사, 1969.
-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서울 : 열화당, 1994.
- 김동일 외 4인, 『동의학 사전』, 서울 : 과학원출판사, 1990.
- 김명자, 『화장품의 세계』, 서울 : 정음사, 1985.
- 김영숙, 『조선조 말기 왕실복식』, 서울 :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 김영숙, 손경자 편저, 『한국복식자료선집』, 조선편Ⅲ, 서울 : 교문사, 1982.
- 김용숙, 『이조여류문학 및 궁중풍속의연구』,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1970.
- _____, 『조선궁중풍속』, 서울 : 일지사, 1987.
- 김원룡, 『한국미술의 특색과 그 형성』, 서울 : 범문사, 1969.
- _____, 『한국미술전집4』, 서울 : 동화출판공사, 1980.
- 김은영, 『전통매듭』, 서울 : 대원사, 1994.
- 김화영 역, 『예술과영혼 ; L'art et L'ame-Rene Huygue』, 서울 : 열화당, 1979.
- 김희진, 『한국매듭』, 서울 : 고려서적 주식회사, 1982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한국장업사편찬위원회, 『한국장업사』, 서울 : 약업신간, 1986.
- 석주선, 『규방예술품노리개』, 서울 : 독서신문사, 1973.
- _____, 『장신구』, 서울 :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1.
- 수림원, 『이조의 자수』, 서울 : 창진사, 1974.
- 신영훈, 『한국의 무늬 ; 여성동아 별책부록』, 서울 : 동아일보사, 1975.
- 예술문화사 편집부 꺾, 『현대여성미용백과 ; 일곱미용』, 서울 : 예술문화사, 1974.
-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 이규태, 『이규태 코너』, 서울 : 조선일보사, 1985.
- 이선재, 『유교사상과 의례복』,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2.
- 이여성, 『이조복식고』, 서울 : 일양당, 1947.
-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 : 교문사, 1983.
- 이 학, 『한수문화』, 서울 : 한국자수문화협회, 1986.
- 임동권, 『한국세시풍속』, 서울 : 서문당, 1976.
- 전완길, 『멋 5000년 ; 한국의 여속』, 서울 : 교문사, 1960.
- _____, 『한국인의 본능』, 서울 : 문음사, 1980.
- _____, 『월간약국』, 1982~1984.
- _____, 『한국 화장 문화사』, 서울 : 열화당, 1987.
- 조효순, 『한국 복식사 풍속연구』, 서울 : 일지사, 1988.
- 한국민속대관, 『일상생활 ; 의식주』, 서울 :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 한석중 역, 『예술과 사회 ; Kunst und Gesell-

- schaft-Arnold Hauser』, 서울 : 흥성사, 1984.
- 허동화, 『한국의 자수』, 서울 : 삼성출판사, 1978.
 - H. 리이드, 정시화(역), 『디자인론』, 서울 : 미진사, 1979.
 - Marilyn J. Horn, Lois M. Gurel, 이화연 외 2명, 『의복 : 제2의 피부』, 서울 : 까치, 1992.
 - Mary Ellen Roach, Joanne B. Eicher, 이유허, 이은숙(역), 『가시적 자아』, 서울 : 경춘사, 1990.
 - William I. Kaufman, 『PERFUME』, E. P. Dutton & Co. Inc., N.Y. 1974.
 - 登園正生, 『香料の辭典』, 東京 : 朝倉書庫, 1984.
 - 今田達, 『韓國の古刺繡』, 東京 : 同朋 出版社, 1983.

2. 논 문

- 금기숙,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 _____, “조선복식미의 탐구”, 복식 14호, 1990.
- 김병상, “한국여성용 은제 향수용기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김선영, “동, 서양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연미, “장신구의 주술적 요소와 상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영자, “향집에 관한 조형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김은주, “한국전통화장품속사에 관한 연구”, 복식 17호, 1991.
- 송민정, “우리나라 전통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한정숙, “한국 여성용 향낭목걸이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ABSTRACT

A Study on Perfume Case

This study is on perfume case that is one of a great number of ornaments, which was designed by our ancestors. We had developed the tradition and the history of perfume case, bag, fan-weight etc. These have the same function as the present perfume case. There were basket-shaped perfume cases which were the smallest one among the personal girdle ornaments in the silla era. The various patterned perfume case were made of gold metal, coral, platinum or green jadeite, etc. In the single-crop trinkets, a embroidered perfume bag with the gold and silver thread whose forms perfectly match their functions appeared during the Yi Dynasty. There was also a perfume bag which was one of the daily necessities. A precious “jul perfume” was carried by noble women. A fan-weight perfume bag was attached to the fan to emphasize the intrinsic beauty of utility and function.

It is necessary to know the function of perfume case.

As perfume case is weared on the clothes, it was given more decorative effect as well as the function of medicinal, amulet with a sweet smell.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study perfume case that has various function as an ornament.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and decorative side of perfume case with the general examines of perfume, finding how to practice use through our lif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first use of perfume is perfume through smoke, which is for ceremony of religion. It removes human body odor by degrees and spreads a sweet odor. Also the materials for making perfume of early age is aromatic plants, which will be used flour-made flowers, stems. As the materials for making perfume use is increasing, today, we can invent alcohol perfume today.

2. Our country the custom of perfume-used is wide. Among them, men's perfume-used was very special phenomenon.

For example, men were wearing perfume bag in the Silla era. Because, perfume represented wealth and noble in those days. They shew off social position, personality through perfume-used.

3. One of early religion ceremony article, there was the perfume. And perfume case was means for containing perfume. Gradually, the perfume case was used widely as increasing needs of perfume in human life.

4. In the middle period of 'Koryo' Dynasty perfume cases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clothes but after Mongolian has been attacked 'Koryo' there were changes in wearing clothes therefore the position of perfume cases were transfered to coat string, that was the origin of decoration style that they began. That is to say, the perfume case has been influenced the position of perfume case, shapes with changing of fashion.

5. The perfume case has been made manifest various function as an ornament. In the practical side, First, medical-perfume in perfume case has bee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irst-aid medicine in critical condition. Second, it was amulet for self protection. That is, the shape, pattern, color, materials, perfume of the perfume case was represented the amuletive nature. Third, it was used as substitute article of perfume. Modern women use liquid-perfume as our ancestors used perfume case, bag, or jul perfume. As started above.

Also, In the decorative side, the perfume case has a beautiful formative arts by itself as well as a close relationship with clothes. That is, when the perfume case is worn on the clothes, costume is showed aesthetices. That is, the materials, shapes, color, pattern of the perfume case, we can see the visual beauty, also the materials, colors, embroidered, pattern, knots, tassel that are used the perfume case are increased the decorative beauty of costume.

Sixth, the symbol in pattern of the pattern case is shown ancestor's wealth and rank, health, longevity, immortality, many-born-boy in those days.

Today, the perfume case is not used with changing of costume by degrees.

Accordingly, I hope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n influenced in development of the perfume case design with matching the modern fashion.